기고

윤신근 수의사·동물학박사 한국동물보호연구회장

병원비 부담돼 가족을 버려서야…

병원비가 부담돼서 '가족'을 버리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있다. 안타깝게도 현실이다. 어제도 일어났고, 오늘도 일어나고 있다. 내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한다면….

여기서 버려지는 가족은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람은 아니다. 반려견, 반려묘' 등 반려동물이다.

구조된 유기동물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피부병, 골절 등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다. 물론 길 위에서 살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버려진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개연성이 너무도 크다.

여기에는 과도한 '동물 진료비'가 한몫한다. 치료는 어렵고, 비용은 많이 드니 돈 들여 치료하기보다 내다 버리고 건강한 강아지, 고양이를 새로 입양하는 사람이 적잖다.

사람이 부모나 자녀에게 버려지면 경찰 지구대를 찾든, 주민센터에 가든 "가족을 찾아달라"고 호소할 것이다. 말 못하는 동물이 그럴 수는 없는 일. 유기동물은 지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수조원에 달한다는 조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대부분은 반려동물 구매비와 병원비다.

구매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병원비는 왜 그렇게 많이 들까?

사람 같은 '건강보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여기에 일부 동물병원에서 벌어지는 '과잉 진료' '고가 진료'가 한몫 거든다.

공교롭게도 건강보험이 없으니 과잉진료, 고가진료가 아무런 제한 없이 자행된다.

건강보험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이를 막을 것이다. 그런 것이 없으니 동물병원이 정한 대로 모든 진료가 이뤄진다.

이 와중에 일부 동물병원, 특히 최근 급증한 '동물메디컬센터' 중 일부는 '검사'로 시작해 '검사'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검사를 많이 한다.

물론 검사로써 환견이나 환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 적절히 치료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같은 수의사가 보기에 굳이 그런 검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라면 얘기가 다르다.

필자도 서울 중구 필동 애견종합병원에 사람 병원 수준의 최첨단 의료 장비를 갖춰놓고 있다.

그래도 필자는 이를 잘 쓰지 않는다. 환견이나 환묘가 오면 말을 할 수 없는 그들을 대신해 반려인과 대화해 문진한다.

이어 눈과 귀, 손, 심지어 코로 환견, 환묘를 진찰해 상태를 살핀 뒤, 적절히 치료한다.

장비로 검사해야 한다고 여기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겠지만, 그럴 필요까지 없을 것 같다면 안 하는 것이 옳다.

반려인에게는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고, 환견이나 환묘애게는 스트레스를 덜 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투자를 많이 해 대형 클리닉을 차렸고, 각종 첨단 장비도 들였다.

수의사부터 스태프까지 인력도 포진한다. 이를 운영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그 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의 선택이 낳은 결과다. 반려인에게 이를 전가해서는 안 된다.

문진을 비롯해 눈으로 보는 시진, 귀로 듣는 청진, 만져보는 촉진, 냄새를 맡는 후진 등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풍부한 지식과 오랜 임상 경험, 자신만의 노하우로 정확히 진단하고, 분명히 판단해 꼭 필요한 진료만 해야 한다.

필자는 중성화 수술비로 수컷의 경우 반려견, 반려묘 모두 5만원, 암컷의 경우 반려묘 8만원, 반려견 15만원을 책정했다.

종합 백신 접종비는 반려견 5000원, 반려묘 2만5000원부터다. 이들 가격은 지난 수년간 동결 상태다. 물가는 올라가겠지만, 필자는 이 가격을 앞으로도 올릴 생각이 없다.

반려인이 가족처럼 대하던 반려동물을 버린다면 죄를 짓는 일일 것이다. 만일 그 이유가 병원비라면 수의사가 그 '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 속 방산기술 유출 국가안보 위협

최근 전기차 경쟁업체의 배터리 기술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모 업체에 대한 국가수사본부 내 안보수사부서의 압수수색 내용이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에는 국방관련 연구소 퇴직자에 의한 방위산업기술 무단유출 사례도 발생한바 있어 산업기술 유출을 왜 경찰이 수사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이다.

방위산업과 일반산업기술 유출은 국가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국민적 관심이 높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경찰청 안보수사국에서는 국가수사본부 출범 후 안보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한 하고 신 안보개념에 입각한 다양한 안보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북한 뿐만아니라 테러 및 방산·산업기술 유출까지 포함 하는 영역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여 국가 안보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그럼 우리의 국내외 방산업체의 안보여건은 어떠한지 들여다보자.

우리나라의 무기수출력이 세계 15위권에 들 정도로 기술력이 상당하다보니 역설적으로 보자면 이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가능성도 증가하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어 해킹 등 국외유출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다.

더욱이 방산 수출 및 국제 기술협력이 증대되어 해외 기술유출 가능성이 커진 만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방산업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해커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수 있도록 취약점 진단을 실시하는 등 방산기술 자구 보호책 마련도 당연히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이버 해킹 침해사고는 대량으로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이 많은데다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피해가 발생했거나 침해 의심현상이 있을때는 주저하지 말고 경찰에 신속히 신고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볼 때 방위산업기술 유출은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출경쟁력 유지 차원에서도 기술 유출방지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각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방위산업기술과 일반 산업기술은 우리의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무너진다면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가안보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김덕형/장성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 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 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외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들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호남신문사

● 후원 계좌 농협 301-0262-7951-61 우체국 500330-01-007591 예금주 (주)에이치앤프레스